

안녕하세요 그리넬 학생 여러분!



2018 학년도 봄학기, 조 멜린 (Joe Mellin)의 지도 하에 18 명의 학생들이 *자동화 및 소득 불평등 시대 속 리더십*(Leadership in an Age of Automation and Income Inequality)이라는 주제로 근 한달 간 특별한 수업을 들었는데요.

빈부격차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이 곳 시골 그리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갖았습니다.



소득 불평등 사회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 밖에 있는 마을들을 공부했는데요. 인근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현지인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고 해결책을 제시 및 수정하며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갔습니다. 저희들 대부분은 평소에 현지인들과 소통할 기회가 적어서 처음엔 어색했는데요...



다들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그리넬을 향한 마음이 깊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구요.



우리는 문제 뒤에 있는 이들을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숙연해졌습니다. 소득 불평등도 자동화도 4차 혁명의 영향은 사람들이 받는 건데 말이죠.

무언가를 얻으면 무언가를 잃지요. 사물과 연결될수록 우리의 순수한 인간 능력과 주체성은 시들어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이고 무엇을 잃게 되는 걸까요. 4차 산업혁명 가운데서, 인간의 날들은 어디로 갈까요.



저는 사람과 공동체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넬 대학교를 잠시 머물다 떠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관문(이라 쓰고 **고문**이라 읽는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해 알아가려고, 이해하려고 조금씩 노력한다면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리넬 마을에게도 큰 유산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2018 년 봄,
사회학과 정소영 (SoYeong Jeong)